

논 단

## 고문헌자료실 환경 개선

송 지 형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열람실 재구성 및 수장고 신설(2015년) |
| II. 서고 공간 변경(2014년)          | 1. 전시 공간 조성                 |
|                              | 2. 수장고 신설                   |
|                              | 3. 열람 환경 개선                 |
| III. 서고 확장 - 개인문고실 신설(2015년) | V. 향후 과제                    |

### I. 서론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은 2014년부터 <경성제대컬렉션및근대기록문화재보존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서고와 열람실을 고문헌 보존과 관리, 이용에 적합한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다. <경성제대컬렉션및근대기록문화재보존관리> 사업은 도서관 장서 확충 사업인 <학술정보기반조성> 사업의 예산 일부를 배정받아 중앙도서관 고문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2014년부터 실시해 온 사업이다.<sup>1)</sup> <경성제대컬렉션및근대기록문화재보존관리> 사업은 크게 (1) 고문헌 보존관리(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실시), (2) 고문헌 디지털 원문 구축, (3) 고문헌 공동 활용 기반 조성(서지 정보 수정·보완, 목록집 발간 등 교내·외 고문헌 접근성 확장을 위한 노력), (4) 서고 및 열람 환경 개선 사업으로 나누어 실시

1) <경성제대컬렉션및근대기록문화재보존관리> 사업명에 대한 제안은 본교 국사학과 이상찬 교수께서 하셨다고 한다. 평소 중앙도서관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이상찬 교수께 지면을 빌어 감사를 표한다.

해 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4) 서고 및 열람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난 2014~2015년 2년 동안 고문헌자료실에서 실시하였던 환경 개선 사업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공간 재구성이 논의되었던 과정과 업무의 흐름을 가급적이면 가감 없이 상세하게 기술하여 혹시라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문에 대해서는 유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중앙도서관 공간 재구성을 추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II. 서고 공간 변경(2014년)

기존에 고문헌자료실은 약 40만 권의 책을 약 2,000㎡의 서고에 수장하고 있었다. 이는 도서 1만 권당 약 50㎡의 면적으로 결코 장서 보관에 적절한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sup>2)</sup> 이미 충분하지 못했던 서고 공간은 2015년 2월 비도서자료실이 이전하기 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되었다.

우선 <경성제대컬렉션및근대기록문화재보존관리> 사업 초기인 2014년 4월에는 고문헌 디지털 원문 구축을 위한 촬영실(약 18㎡)을 서고 내에 임시로 조성하였다. 사진 촬영을 위해서는 빛의 반사를 차단할 수 있는 암실을 조성하여야 하는데 기존 고문헌자료실이 사용하던 열람 공간 내에서는 암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곤란하였고, 불가피하게 고문헌자료실 서고의 일부 공간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임시 촬영실을 조성하였다.

2014년 12월에는 고문헌자료실 서고 내에 가벽(스터드 칸막이)을 설치하여 승강기를 고문헌자료실 서고에서 분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승강기와 비도서자료실을 연결하는 통로도 함께 조성하여, 고문헌자료실 서고를 통과하지 않고도 승강기를 이용할 수

2) 도서관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서는 장서량에 따른 최소 서고 면적에 관한 기준을 찾아보기가 곤란하다. 예를 들어 한국도서관협회에서 펴낸 『한국도서관기준』은 대학도서관 최소 면적 기준으로 계산식( $TS = -2,240 + 0.7S + 0.008C$ ;  $TS$ =연면적,  $S$ =학부생+대학원생,  $C$ =장서)을 제시하고 이 중 자료 공간으로 30~35%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 공간과 이용자 공간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하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 고문헌을 관리하는 서고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한국도서관협회, 2013, pp. 130-131). 다만, 유사한 법령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참조하면 종이기록물은 고정식 서고의 경우 1만권당 99㎡를 적정 시설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기록물 1권은 100매 가량 편철된 서류철 1권을 의미하므로 관련 규정을 도서관에 직접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있게 하였다. 기존에는 고문헌자료실 서고 내에 승강기가 자리 잡고 있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장비나 서가, 제본을 위한 자료 반출 등에 승강기를 활용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폐가제(이용자의 출입을 차단)로 운영하는 고문헌자료실 서고에 외부인이 빈번하게 출입하여 서고가 보존용 서고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시설 공사나 장비 설치를 담당하는 외부인이 주로 승강기를 활용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외부의 먼지가 유입되고, 승강기를 사용하는 동안은 자료 보안(무단 반출 차단)을 위하여 직원 1인이 그 과정을 감독하는 게 불가피하여 업무상의 손실을 야기하기도 했다. 서고와 승강기 공간(약 24㎡)을 분리시킴으로써 서고에 외부인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서고가 본연의 자료 보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칸막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승강기 앞 통로에는 가로 365cm×세로 115cm 넓이의 창을 내어, 도서관 방문자들이 고문헌자료실 서고를 밖에서 둘러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고문헌자료실 서고는 폐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도서관 이용자나 견학 등 방문객들이 서고를 둘러보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중앙도서관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서고 입구에 유리문을 설치하고 서고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데 착안하여, 고문헌자료실 서고에도 서가를 볼 수 있는 창을 설치하였다. 서고 공간 축소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앞에 공간을 다소 넓게 배정한 것은 기획홍보실이나 학과전담연구지원실 등에서 단체 견학을 실시할 때 열람실과 분리된 공간에서 고문헌자료실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고문헌 열람자들이 연구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존 서가(7단 높이의 양면 서가 6조)가 일부 철거되어 서고 공간이 좁아졌다.

관정관 개관을 준비하면서 고문헌자료실 서고의 면적은 더 축소되었다. 기존에 6층 열람실을 단행본 서고(단행본 7자료실)로 활용하면서 5층에서 6층으로 자료 이전 작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 이전 완료 후 이용자 통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당시 비도서자료실 입구 계단실과 승강기를 연결하는 통로를 당시 6열람실이 있던 공간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었다. 이로 인하여 고문헌자료실 서고 내에 가벽을 6열람실까지 연장해서 설치하고, 공조기(空調機)의 송풍로 아래에 폭 약 1.5~1.8m, 높이 약 2.1~2.3m 가량의 통로를 조성하였다.

새로 조성한 통로는 기존에 통로로 사용하지 않던 공간을 신규로 조성하다 보니 도서관 직원들에게도 생소한 공간으로, 향후 이용자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공간 배치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통로 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화재 등 재난 시에는 통로가 좁고, 통로 상단의 공조기 송풍로가 화재에 취

약한 재질로 덮여 있기 때문에 우회할 수 있는 대피 경로를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도 있다.

도합 세 번의 공사 실시로 인하여 고문헌자료실 서고 면적은 약 250㎡ 가량 축소되었다.

### Ⅲ. 서고 확장 - 개인문고실 신설 (2015년)

2015년 2월 중앙도서관 관정관이 개관하면서, 비도서자료실이 멀티미디어플라자로 자료실 명칭을 변경하고 관정관으로 옮겨 갔다. 기존 비도서자료실은 각종 A/V(음성·영상) 자료를 비롯하여 신문·마이크로필름·지도·악보는 물론 OECD 등 국제기구 자료를 관리하던 자료실로,<sup>3)</sup> 신설한 멀티미디어플라자에는 A/V 자료만을 이관하였으며, 나머지 비도서자료는 본관 4층의 참고자료실(국제기구 자료, 마이크로필름, 지도, 악보 등)과 6층의 단행본자료실(신문)에서 분산 소장하였다. 비도서자료실이 이전하면서 기존에 비도서자료실이 사용하던 공간 가운데 단행본자료실에서 관리하게 된 신문 서고를 제외한 약 620㎡의 공간을 고문헌자료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당초 고문헌자료실은 새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공간에 열람실 및 보존처리실과 촬영·편집실 등을 이전시키고 기존의 고문헌자료실 열람실(약 275㎡)은 서고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관정관이 본관 건물을 감싸는 구조로 세워지면서 기존에 비도서자료실의 동남쪽 창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점을 간과한 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공간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관정관 측 벽면에 환기 시설의 부재로 작업이나 사무 공간을 설치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 고문헌자료실 열람실 및 일사문고실로 사용하던 공간은 온·습도 조절이 쉽지 않아 서고로 조성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었다. 결국 관정관과 벽면을 마주한 동남쪽 공간은 서고 외에는 활용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되어, 가벽을 설치하여 기존 비도서자료실 공간을 분리하고 관

3) 연도별 『도서관보』의 현황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건대, 2006년 무렵에 기존의 '신문마이크로자료실'(약 569㎡)을 '비도서자료실'(약 636㎡)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하였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간 운영하여 온 비도서자료실의 역사(설치 경위부터 운영, 해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를 누군가가 정리하여 보는 것도, 우리 도서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개편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도서관의 특성상 향후 유사한 형태의 자료실 설치 계획이 있을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까 싶다.

정관 측과 면한 325㎡의 공간은 서고로 활용하되, 당초 이전하기로 하였던 보존처리실과 촬영·편집실은 기존 고문헌자료실 열람실 내에 확장하여 조성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새로 조성한 서고에는 개인문고 가운데 일부를 이전하기로 하였다. 고문헌자료실은 경성제국 부속도서관 분류표로 분류된 장서(구간(舊刊)도서, 이하 ①)<sup>4)</sup>, 두이 십진분류표로 분류된 장서 중 1945년 이전 단행본(이하 ②)<sup>5)</sup>, 개인문고 도서 중 고문헌자료실에서 보관기로 한 도서(이하 ③)<sup>6)</sup>, 한적본(이하 ④)<sup>7)</sup> 등 성격이 서로 상이한 네 가지 범주의 도서를 관리하고 있다. ①과 ②는 출판연도를 기준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면 ③과 ④는 출판연도와는 무관한 범주의 자료이다. ②는 양장본, ④는 한적본으로 형태상 구분이 가능하나 ①과 ③은 양장본과 한적본이 혼재되어 있다. ①과 ③은 이전 소장자(출처)가 분명한 자료라면, ②와 ④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고문헌자료실이라는 실명에 ‘개인문고’를 병기한 것도 이러한 복잡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새로 조성한 서고에 이전할 도서를 선정하는데 우선 ①은 고문헌자료실 소장 자료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자료로 일부분만을 이동시키기가 곤란하여 배제하였다. ②는 ①과 출판연도가 동일한 자료로 주제나 내용면에서 유사한 성격의 자료이므로 계속

- 
- 4) ①번 범주에 해당하는 책을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장서라고 표기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성제국대학이 아닌 경성대학의 장서인이 있는 도서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서울대 설립연도인 1946년 이후에 발행한 도서에 경성대학의 장서인이 찍혀 있는 것은 서울대 도서관이 한동안은 경성대학의 장서인을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여 볼 수 있다. 둘째, ②번 범주로 분류된 책 가운데에는 상당수의 경성제국대학 장서인이 있는 도서가 발견된다. 이는 소위 구간도서의 상당수가 일정한 과정을 거쳐 서울대 도서관에서 일반도서로 재분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①번 범주에 해당하는 책을 편의상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장서로 설명하지만, 기존에 사용하였온 구간도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편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 하겠다.
- 5) 국내 발행 도서는 출판연도가 1946~1953년인 도서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 6)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지금까지 15개의 개인문고를 설치하였다. 일사, 가람, 상백, 설송, 학현, 서농, 국산, 목촌, 남창, 백사, 심악, 일석, 오자와(小澤), 학렬, 코카(Kocka) 문고 순으로 설치되었다. 일사·가람·상백문고의 고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서가 아닌 책은 중앙도서관이 분산 소장하고 있다. 국산·목촌문고는 법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고, 학렬·코카문고는 단행본자료실에서 관리하고 있다. 고문헌자료실은 일사·가람·상백을 포함한 11개의 문고를 소장하고 있고, 코카문고 가운데 1945년 이전 자료를 일부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③번 범주를 개인문고라 하지 않고 개인문고 중 고문헌자료실에서 보관기로 한 도서라 하였다. 2015년에는 중앙도서관 내에 시진평 기증도서 자료실이 설치되었으나, 이는 개인문고는 아니다.
- 7) 책장을 끈으로 묶은 선장본(線裝本) 형태의 책으로 출판연도와 무관하게 고문헌자료실로 인계되고 있다.

기존 서고에 ①과 함께 별치할 필요가 있다. ④는 일반 양장본 도서와는 다른 형태의 자료를 놓여서 보관할 수 있는 넓은 면적의 서가를 필요로 하는 데다, 동일한 한적 본이라 하더라도 향후 고서(古書)와 신서(新書)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분간 이동을 보류하였다.<sup>8)</sup> ③은 11개의 개인문고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 고문헌자료실 서고 내에서도 두 그룹(1그룹: 가람·상백·서농·남창·심악문고, 2그룹: 설송·학현·백사·일석·오자와문고)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위치에 보관하였고, 일사문고는 서고 밖에 별도의 문고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개인문고는 이 중 일부만을 분산하여 보관하더라도 기존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지 않으며, 개인문고 각각의 완결성도 유지할 수가 있다. 또한 비교적 신서의 비중이 높아 자료를 놓여서 보관해야 하는 부담도 덜한 편이다. 실제로 연세대 학술정보원 국학자료실의 경우도 고문헌 서고와 별개로 용재문고실, 우남자료실, 루스벨트자료실, 개인문고실 등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참고가 되었다.

새로 조성한 서고는 약 250㎡의 면적으로 ‘개인문고실(가칭)’이라 하였다. 우선 2015년 2월 1차로 백사, 서농, 오자와 등 3개 문고에서 약 24,000책을 이전하였다. 2015년 6월에는 서가를 추가 설치하여 2차로 일석문고 중 양장본 약 5,000책을 이전하였으며, 2016년 2월 전까지 설송, 학현문고 3,150책의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2016년도에도 추가 서가를 설치하여 한 두 개의 문고를 이동하고자 한다. 모든 자료 이동이 완료되면 약 4만여 책(고문헌자료실 소장 개인문고 도서의 약 70%)의 문고도서를 수장한 개인문고실이 완성될 예정이며, 이전하지 못한 개인문고와 문고본 고도서는 향후 추가 공간을 확보하여 기존 고문헌 서고와 분리할 예정이다.

개인문고실의 조성으로 고문헌자료실은 비좁은 서고를 운영하는데 약간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 IV. 열람실 재구성 및 수장고 신설(2015년)

고문헌자료실은 2015년 10월부터 약 2개월간 기존 비도서자료실 공간에 대한 대규모 공간 배치 재구성 공사를 실시하였다. 공사 내역은 크게 전시 공간 조성, 수장고 설치, 열람 환경 개선으로 나눌 수 있다. 공사에 앞서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

8) 이 글에서 고서와 신서는 편의상 출판연도를 기준으로 1945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고자 한다.

간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설계는 (주)피치디자인에서 담당하였다. 시설 공사는 조달청을 통하여 입찰을 실시하였고, 개찰 결과 건축 공사는 주식회사 제일티디, 전기 공사는 경일ENG에서 맡게 되었다. 소방 공사는 (주)지안소방에서, 감리는 (주)비퍼플에서 담당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성실한 시공사가 건축 공사를 낙찰 받아 설계 단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많이 보완하여 차질 없이 완공할 수 있었다.

## 1. 전시 공간 조성

기존 비도서자료실에서 사용하던 공간은 공간 구성에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관정관과 면한 동남쪽은 창문을 사용할 수 없고 출입구인 계단실과 화장실을 연결하는 동선은 이용자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신문 서고와 자료실 사이의 출입구 앞도 비상시를 대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비워두어야 한다. 이로 인하여 계단실과 화장실이 차지하는 구획과 서고 구획 사이에는 신문 서고 입구로부터 길이 15m, 폭 4.5m의 ‘소용없는 공간(dead space)’이 발생하였고, 이 공간은 서고, 열람실, 사무·작업 공간 등 어떤 용도로도 활용할 수 없는 계륜(鷃肋)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관정관이 세워지기 전까지 고문헌자료실 서고는 중앙도서관을 찾는 방문객들이 반드시 거쳐 가던 공간이었다. 고문헌자료실 서고는 폐가제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본교 교수나 학생들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을 외부인들에게만 개방한다는 것은 다소 모순적인 운영 방침이었다.<sup>9)</sup> 그러나 서고를 막상 둘러보더라도 서고 안에는 서가만 빼곡할 뿐 고서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은 마땅치 않아 방문자들에게 우리 도서관 소장 고서의 가치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문헌자료실은 ‘소용없는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서관 방문자들이 서고를 출입하지 않고도 고문헌자료실을 충분히 견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 공간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고문헌자료실 입구에 고문헌자료실에 설치된 개인문고를 소개하는 안내판을 투명 아크릴로 제작하였다. 안내판에는 문고 기증자의 사진을 넣고 간략하게 약력을

9) 2012년 개정된 <고문헌자료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자료실 담당자 이외에는 서고 출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본교 교수 혹은 학술 연구 목적이 분명한 자가 공문서로 신청할 경우 관장은 서고 출입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서관 방문자가 서고를 둘러보는 것은 규정상 금지 행위이며, 서고를 견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서고를 이용할 수 있다.

소개하여 기증자를 예우하였다.

둘째, 열람석과 화장실 사이의 공간은 향후에 전시대를 설치하여 소규모의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전시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주로 보존처리를 완료한 자료를 대상으로 처리 전·후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전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화장실 및 계단실 벽면에는 5단 목재 서가를 설치하였다. 목재 서가의 폭은 70~77cm이고, 높이는 50cm, 깊이는 34cm이다. 서가의 높이와 깊이는 대형 자료를 배가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정하였고, 선반의 두께도 5cm 이상으로 하여 자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기존 서고에 배가하지 못하던 연속간행물 중 대형 자료나 한적본(漢籍本), 사전류를 진열하였으나, 향후 서고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넷째, 개인문고실 벽면에는 가로 450cm×세로 140cm 넓이의 강화유리로 창을 내어 방문자들이 개인문고실에 출입하지 않고도 서고 안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였다. 창을 통하여 관정관의 그룹스튜디오까지도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다섯째, 개인문고실 벽면에 가로 450cm×세로 300cm 넓이의 진열장(이하 벽부장)을 설치하였다. 벽부장에는 병풍 등 대형 자료를 진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깊이를 115cm로 하여 다양한 입체 자료도 전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벽부장은 뒷면에 여닫이문을 설치하여 자료의 출납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sup>10)</sup> 현재는 2014년에 수리보존처리를 완료한 1856년 해동판(海東版) 『곤여전도(坤輿全圖)』가 전시중이며, 향후에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제작한 문화재급 지도의 복제본 전시도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여섯째, 수장고 측 벽면은 가로 180cm×세로 290cm의 석고보드 세 면을 사선으로 배치하였다. 향후 전시회를 개최할 때 출력물 등을 부착하여 전시회 안내 용도로 활용할 예정이다.

## 2. 수장고 신설

고문헌자료실 서고는 일반 자료실 서고와 동일한 형태의 서가가 배치되어 있는 서

10) 당초 설계도면에는 벽부장의 옆면에 문을 내어 자료를 밀어서 출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자료의 출납이 용이하지 않을 거라는 시공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닫이문으로 설계를 수정하였다.



고로, 다만 공조 설비를 설치하여 온·습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운영해 오고 있다. 서고 내부에는 귀중도서를 관리하기 위한 귀중본실을 별도로 설치하였다.<sup>11)</sup> 중앙도서관 소장 귀중도서는 모두 645책으로 고문헌자료실 소장 자료의 약 0.15%에 지나지 않는다. 고문헌자료실에는 비록 귀중도서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귀중도서로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자료가 많다.<sup>12)</sup>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이 공간 부족으로 서고에 일반 고서와 함께 배가되다 보니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서고 공간 부족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장기 대출 중인 자료를 반납받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어 왔다.<sup>13)</sup>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장기 대출 도서는 현재 고문헌자료실 소장 자료와 ‘출처’ (provenance)가 동일한 자료이다. 고도서와 고문서는 모두 이전 소장 기관이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이며, 문고본 고도서도 일사·가람·상백문고와 경제문고<sup>14)</sup>로 기록물 관리의 기본 원칙인 ‘출처 주의’ (principle of provenance)를 따르자면 중앙도서관이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중 한 기관에서 동일한 출처의 기록물을 한꺼번에 소장하는 게 옳다.<sup>15)</sup>

중앙도서관은 서고 공간 문제로 그간 문고 설치는 물론 개인 기증 도서를 수집하는 데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sup>16)</sup> 1994년 이희승(李熙昇, 1897~1989) 선생의 일석(一石)문고 설치 이후 중앙도서관 내에 국내 장서가의 문고 설치는 중단되었다.<sup>17)</sup> 물론

- 11) <도서관규정 시행세칙> 별표 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귀중도서 지정 및 관리지침’에 “귀중도서는 귀중도서실에 별도로 보존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12) 예를 들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한성순보』나 『대한매일신보』, 『대조선독립협회회보』는 귀중도서가 아니다.
- 13) 1992년 3월 규장각이 중앙도서관과 분리되면서 규장각도서와 책판 등 175,339점의 자료가 규장각으로 관리 전환되었고, 이와 함께 79,257점의 자료(고도서 19,633책, 문고본 고도서 6,382책, 고문서 50,690점, 한국학 자료 2,552책)가 중앙도서관에서 규장각으로 장기 대출되었다.
- 14) 경제문고는 경성제국대학 조선경제연구소의 도서를 말한다. 경제문고는 개인문고는 아니나 편의상 다른 개인문고 도서와 함께 ‘문고본’으로 통칭한다.
- 15) 출처 주의를 “같은 출처의 기록이나 보존 기록은 다른 출처의 그것과 뒤섞이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한국기록학회, 2008, p. 251).
- 16) 중앙도서관은 2011년 수원보존도서관을 설치하여 60만권의 장서를 교외에 보관할 정도로 서고 공간 문제가 심각하다. 비록 관정관이 개관하였지만 기존 중앙도서관 본관의 5·6층 열람실 공간 외에는 서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장서를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 17) 1994년 이후 오자와, 학렬, 코카문고가 설치되었다. 2003년 설치한 오자와 문고는 일본인인 오자와 유사쿠(小澤有作, 1932~2001), 2008년 설치한 학렬문고는 재일동포인 김학렬(1935~), 2013년 설치한 코카문고는 독일인 위르겐 코카(Jürgen Kocka, 1941~)의 개인문고이다. 개인문고 설치가 줄어든 것은 우리 도서관의 경우 등록 책 수가 1,000책 이상인 경우만 기념문고 설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우리 도서

이희승 선생이 워낙 유명한 장서가로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으므로,<sup>18)</sup> 달리 말해 이희승 선생 정도의 장서가가 아니라면 사실상 우리 도서관에 문고 설치가 불가능하였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유명한 장서가의 문고가 도서관에 기증되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우선 도서관 자체적으로 서고 공간을 비롯하여 귀중 고서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면 그에 걸맞은 자료 기증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고문헌자료실에 약 75㎡ 너비의 수장고를 새로 조성하였다. 서고가 아닌 ‘수장고’ (收藏庫)라고 이르는 것은 우선 수장고가 “귀중한 것을 고이 간직하는 창고”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국립국어원, 2016), 고문헌을 좀 더 가치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고문헌자료실의 요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수장고의 목적은 환경을 제어하여 수장품의 열화(劣化)를 예방하는 데 있다.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으로서는 온습도, 대기의 오염물질, 빛, 곰팡이, 해충 등을 꼽을 수 있는데(Adcock, n.d./2009, pp. 33-47), 새로 조성한 수장고는 무엇보다 가장 기본이 되는 환경 요인인 온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한편, 화재나 도난 등 재난에 대비가 가능하도록 조성하였다.

수장고 온습도의 조절은 기본적으로 향온향습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sup>19)</sup> 수장고에는 공냉식·상향식 향온향습기를 설치하였으며,<sup>20)</sup> 향온향습기를 수장고 외부에 두고 덕트(duct)를 수장고와 연결하여 공기가 수장고 위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수장고의 외벽에는 내부식 불투습 패널과 친환경 조습(燥濕)마감재를 설치하여, 장시간 공조가 정지되었을 때에도 일정하게 온도와 습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sup>21)</sup>

관 <기증자료 처리지침>에 따르면 “도서관에 동일한 자료가 이미 소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등록 제외 자료가 되므로 국내서를 주로 소장하고 있는 장서가의 경우에는 신규 문고 설치가 사실상 쉽지 않다.

- 18) 강명관에 따르면 1959년 《동아일보》에 13인의 장서가에 대한 연재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 이희승 선생의 일석서실(一石書室)도 이 중 하나이다. (강명관, A29면). 강명관은 일석서실을 “‘약 만권의 장서로 꽉 차 있는 밝고 깨끗한 서재’ 한쪽에 목록함까지 비치한 ‘새삼 서장(書藏)의 의(義)와 충(充)’을 얻은 그런 깔끔하고 정돈된 서재”라고 묘사하였다.
- 19) 기존 서고는 향온향습기 대신 공조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향온향습기와 공조기의 차이는 습도 조절의 가능 여부에 있다.
- 20) 향온향습기는 냉매에 따라 공냉식과 수냉식으로, 공기 배출 방식에 따라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공냉식을 사용하나, 실외기의 위치가 멀 경우 효율이 떨어지므로 냉각수를 사용하는 수냉식을 사용한다. 하향식이 상향식에 비하여 균등하게 공조가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설치비가 많이 든다.
- 21) 중앙도서관은 연중 1~2회 단전이 실시되므로, 향온향습기만으로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다. 오히려 단전으로 인한 급격한 온·습도 변화는 자료에 더 치명적

현재 수장고의 온도는 21℃, 습도는 50%를 유지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서 제시하는 보존환경 유지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다.<sup>22)</sup>

항온항습기는 상당한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수장고의 벽체를 조습 패널 대신 불투습 패널을 사용한 까닭은 조습 패널에 사용하는 오동나무 재질이 방염(防炎)에 취약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고 안에는 캐비닛형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여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소화약제가 발사되도록 하였다. 소화약제는 HCFC-123을 비치하였다.<sup>23)</sup> 한편, 수장고 내 자동 소화 장치가 소방방재실(500동), 본부 및 중앙도서관 방재실에서 원격으로 감지될 수 있도록 관련 회로를 추가로 증설하였다.

끝으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 서고와 수장고에는 적외선 카메라도 추가로 설치하였고, 2016년에는 보안 시스템 경비 구역을 확장할 예정이다.

### 3. 열람 환경 개선

고문헌자료실은 이용자에게 자료를 대출하지 않고 지정 구역 내에서만 열람하는 폐가제로 운영해 오고 있다. 따라서 자료 대출이 불가능한 데서 이용자의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적의 열람 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열람 환경에는 ① 조명, ② 소음 수준, ③ 가구 배치, ④ 실내 공기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조명이나 소음 수준, 가구 배치 등에 대해서는 부족하게나마 한국도서관협회(2003)에서 발행한 『한국도서관기준』에 대략적인 대학도서관 시설 기준을 제시되어 있으며, 실내 공기와 관련해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고의 벽면에 조습 패널(오동나무 재질)이나 불투습 패널을 설치하여 24시간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다.

- 2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종이 기록물은 온도를 18~22℃, 습도를 40~55%(변화율은 10% 이내)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였다.
- 23) 일반적으로 하론은 박물관 등 물로 소화할 수 없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승엽, 2002, pp. 87-88). 그러나 하론은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에 따라 2010년 이후 생산이 중지되었다. (이미 생산한 가스를 주입한 소화기는 생산할 수 있다). HCFC-123은 하론을 대체하는 청정소화약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HCFC 또한 오존층을 파괴하여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에서는 연도별 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를 공고하고 있다. <(환경부)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참조.

서는 환경부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있다.<sup>24)</sup>

### ① 조명

『한국도서관기준』은 이용자 열람 공간에 대하여 “직접조명을 설치하고”, “일반열람실 및 개가제 서고의 조도는 300~500룩스, 폐가제 서고는 100~200룩스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빛에 의한 자료의 손상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서고에는 적합하나, 서고가 없는 일반 열람실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둡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한국산업규격의 조도기준(1998)에는 도서관의 경우 사용이 적은 서가는 30~60룩스, 일반 장소의 서가는 150~300룩스이나, 열람실은 작업 내용에 따라 600~1,500룩스(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의 조도도 필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고문헌자료실 열람실은 기존 형광등을 LED 조명으로 대체하여 열람석 테이블에서 사각에서도 1,000룩스 이상의 조도가 유지되도록 하였다.<sup>25)</sup> 열람석 조명 주위에는 루버(louver)를 대어 조명이 은은한 느낌을 주도록 하였다.

### ② 소음 수준

고문헌자료실은 사무 공간과 열람 공간을 겸하고 있으므로 사무 공간에서 가급적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도 직원들이 유의하여야 한다. 주로 소음이 발생하는 구역은 사무 공간이므로, 사무 공간의 천정에는 흡음 텍스(sound absorption tex)를 대어 다소나마 소음이 감소하도록 하였다. 열람 공간에서도 자료 열람과 동시에 자료 복사나 촬영이 이루어지므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열람실 내에서 복사·촬영 공간을 구조적으로 분리하기는 곤란하므로, 고문헌자료실 입구의 자투리 공간을 복사·촬영 구역으로 지정하여, 열람용 테이블과 복사기·카메라의 위치를 가급적 멀리하도록 설계하였다.

24)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과 권고기준(제4조)을 제시하고 있다. 유지기준에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의 기준치를, 권고기준에는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오존의 기준치를 제시한다.

25) 열람석 테이블 위에는 LED PAR30 13W 전구를, 나머지 공간에는 LED 다운라이트 6인치 24W 4000K 전구를 사용하였다. LED 전구는 기존 할로젠 전구에 비하여 소비전력이 적고, 수명이 길며,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번 공간 구조 개편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열람 공간과 전시 공간이 공존하는 문제이다. 이는 기존 고문헌자료실에서도 반복되던 문제로, 우리 도서관이 대학도서관을 대표하는 도서관이다 보니 단체 견학이 빈번한데 이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도서관에 충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면 규장각한국학연구원처럼 전시 공간과 열람 공간을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답이겠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고문헌자료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외부에 별도의 해설 공간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시 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열람 공간과 전시 공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소용없는 공간’을 활용하여 자료 열람이 목적인 이용자와 견학이 목적인 이용자의 동선을 달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으므로 도서관 견학시 이용자가 자료를 열람하고 있을 경우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음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③ 가구 배치

『한국도서관기준』은 도서관 가구에 대한 기준은 색상 정도밖에 제시하지 않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13, p. 132).<sup>26)</sup> 그러나 가구는 열람 환경을 조성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고문헌자료실은 폐가제로 운영하므로 이용자가 자료를 대출하지 못하는 불만을 최소화하려면, 이용자가 열람실 내에서 자료를 반드시 읽고 가도록 유도하는 가구 배치가 필요하였다. 아울러, 고문헌자료실에는 도서 외에도 지도나 탁본 등 대형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므로, 대형 자료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너비의 책상도 배치할 필요가 있었다.

다만 기성품(우선구매대상 조달우수제품) 가운데에는 이러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열람용 테이블을 찾을 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제작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열람실에는 가로 2,800mm×세로 1,600mm×높이 750mm의 원목 테이블을 두 대 설치하였으며, 이만한 너비의 원목을 구할 수 없어 상판 네 개를 결합한 형태의 열람용 테이블을 제작하였다. 상판 두께는 30mm 이상으로 하고, 다리는 상판을 지탱할 수 있도록 견고한 스틸 파이프(steel pipe)로 제작하였다.

또한, 사무 공간과 열람 공간을 구분하기 위하여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였다. 안내 데스크는 가로 4,500mm×세로 700mm×높이 750~1150mm로 이용자 응대가 이루어지는

26) “대학도서관의 가구는 조명 흡수율이 30% 정도인 중간명도의 색상(황토색, 짙은 베이지색, 황갈색, 벽돌색 등)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간이며, 사무 공간을 시각적으로 차단하여 열람자가 자료 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내 데스크에 높이를 달리하여, 높이가 낮은 공간에는 검색용 PC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내 데스크 주변의 벽면과 천정에는 루버를 대어 열람 공간과 사무 공간이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하였다. 열람 공간과 사무 공간을 벽으로 구분하지는 않았는데, 공사 구역 4면 중 북동쪽에만 창이 나 있는 구조적인 제약 때문이다. 이로써 열람 공간의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탁 트인 개방감을 주어 쾌적한 열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 ④ 실내 공기

실내 공기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석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도서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석면이 측정되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약 404.64㎡에 달하는 열람 및 사무 공간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텍스를 전면 교체하였다. 석면 해체·제거는 전문업체(주)녹색사람들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한편, 2016년 1월에는 교내 환경안전원에서 도서관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였다.<sup>27)</sup>

### V. 향후 과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가장 핵심 공간은 자료를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료를 보관하는 수장고일 것이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소장품 대부분을 수장고에 보관하고, 그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전시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논리로 도서관의 핵심은 서고라 할 수 있다. 도서관의 대부분의 장서는 서고에 보관하고 그 중 일부만이 이용되기 때문이다. 여전히 도서관의 장서 규모가 그 도서관의 등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sup>28)</sup> 서고는 도서관의 ‘심장’이라 할 수 있

27) 측정 항목은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부유세균 등이며, 2016년 2월 현재 분석 결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이번 글에서는 관련 자료를 게재하지 못하였다.

28) 일례로, 한동안 ‘책 없는 도서관’을 모토로 전자도서관 사업에 열중한 국립중앙도서관은, 2015년 5월에 세계에서 15번째로 천만 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되었다는 보도 자료를 낸 바 있다.

다. 그러므로 신축이나 증축을 비롯한 모든 도서관의 공간 구상은 서고를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고문헌자료실 환경 개선 사업에서도 아쉬운 점은 개선이 시급한 서고는 손대지 못한 채 주변 정비 작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다.

변명을 덧붙이자면 <경성제대컬렉션및근대기록문화재보존관리> 사업은 한정된 예산을 매년 집행해 나가는 방식이다 보니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사업을 벌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서고를 개조하려면 약 40만 책에 달하는 소장 장서를 보관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데, 도서관 내 사정상 공간 마련이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현재 고문헌자료실 서고는 공조 설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팀 단위의 사업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sup>29)</sup>

다만, 서고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매년 조금이나마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신문 등 대형 자료는 기존 서가에 적정량을 초과하여 차곡차곡 포갠 채로 보관하고 있지만, 기존 서가보다 칸을 좀 더 추가한 넓은 면적의 서가로 교체한다면 신문과 같은 대형 자료의 관리가 좀 더 용이할 것이다. 또한 소형 자료를 추려내어 별도의 장에 보관한다면 분실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sup>30)</sup>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은 서고 공간의 확보라 할 수 있다. 비록 지난 2년간 고문헌자료실 서고 공간이 일부 확장되었지만 1,000권 이상 규모의 문고 도서가 새로 입수된다면 고문헌자료실 내에는 이를 추가로 배가할만한 공간이 충분치 않다. 기증 도서가 고서라면 서고 공간과 더불어 그에 걸맞은 보존 환경도 갖추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단, 자료가 입수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보존 서고를 늘려나가는 방식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온·습도 조절 기능을 갖춘 서고 전용 건물의 확보가 우리 도서관의 과제라 하겠다.

우스갯소리이지만 ‘기승전돔’이라는 말이 있다. 모 야구 해설자가 한국 야구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꺼내건 결론은 돔 구장 건설의 필요성으로 끝난다는 얘기를 비꼬아서 표현한 말이다. 당분간 고문헌자료실에서 제출한 모든 보고서의 결론은 ‘기승전서고’가 될 것이다.

29) 서고 전체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천장형 공조 설비와 조습 패널을 갖춘 연세대 학술정보원 국학자료실 서고의 사례를 참고해 볼만하다.

30)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30cm 이상인 도서를 대형 도서, 10cm 이하인 도서를 소형 도서로 구분하고 있다. 대형 또는 소형 도서를 일반 도서와 함께 장기간 배열할 경우 자료의 뒤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 글에서 대형 자료는 신문 등 세로 길이가 50cm 이상인 자료를 말한다.

## 참고문헌

- 강면관 (2015. 8. 27). 한국의 장서가들. 경향신문, A29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타법개정)
- 국립국어원 (2016). 표준국어대사전. Retrieved from <http://stdweb2.korean.go.kr/>
- 국립중앙도서관. (2016, February). Retrieved from <http://www.nl.go.kr/>
- 국립중앙도서관 보도자료. (2015. 5. 6.), 국립중앙도서관, 천만장서 시대 열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20호, 2015.11.18., 일부개정)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12). 고문헌자료실 운영지침. (2012.07.02., 제정)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12). 도서관규정 시행세칙. (2012.12.11., 개정)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14). 기증자료 처리지침. (2014.01.28., 개정)
- 신승엽 (2002). 박물관의 하론 소화설비 적정성과 비상조치계획.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5, 87-91.
-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환경부공고 제2012-518호, 2012.10.26., 제정)
- 한국기록학회 (편)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한국도서관협회 (편) (2013). (2013년판)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산업규격 조도기준 (1998). KSA 3011:1998.
- Adcock, Edward P. (편) (n.d.). 이귀복 외 옮김 (2009). 도서관 자료의 관리 및 취급을 위한 IFLA 원칙. 서울: 국립중앙도서관.